끊긴 하나님 뜻의 흐름 다시 잇기

(시편 60:1~12)

5.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6.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8.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9.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끊긴 하나님 뜻의 흐름 다시 잇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끊긴 하나님 뜻의 흐름 다시 잇기'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보기로 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청년 마티 맥플라이는 괴짜 박사인 에미트 브라운과 나이를 넘어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실험 도중 테러에 휘말린 브라운 박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티는 박사를 구하기 위하여 박사가 만든 자동차형 타임머신인 드로리안을 타고 3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브라운 박사와 재회한 마티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을 만나 그들이 결혼 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고, 타임머신의 개발을 포기하려는 박사를 위로하여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티의 최대 문제는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드로리안을 재가동시킬만한 어마어마한 전력이 30년 전의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마티는 현실 시점에서 시청의 탑이 30년 전에 벼락을 맞아 허물어졌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벼락이 떨어질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던 마티는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해서 드로리안을 가동시켜 현실로 돌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시청 탑의 피뢰침에 전선을 연결하여 그 전력으로 드로리안에 전기를 공급하게 한 것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고 타임머신을 탄 마티가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드로리안을 가동시

키는 순간 예상 못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시청 탑과 이어져야 할 전선이 딱 세 뼘 정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드로리안은 달리기 시작했고 벼락이 칠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친다면 더는 전력을 구할 수 없어 영영 현실로 돌아오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의 결론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신앙적 시야를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마티가 살기 위해서는 전선이 이어져야만 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흐름이 다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생의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다 속과 풀 한 포기나 돌멩이 하나 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닿고 통과하여 존재하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정한 조건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뜻의 흐름을 끊는 유전적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재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요소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키며 존재하고 있는데, 오직 나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뜻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끊어갑니다. 끊겨진 하나님 뜻의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끊어내는 유전적 체질을 억제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유지될 때에만 하나님 뜻의 흐름은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인간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 뜻의 흐름을 끊기를 소망하고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흐름을 통과시켜본 적조차 별로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표현된 것입니다. 태어난 이상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켜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즉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도 그 흐름을 내 인생 안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흐름을 잇는 방법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시입니다.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무척 깁니다. 우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시"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믹담 시는 황금의 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소개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듯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BC.1003년경에 다윗의 군대가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일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을 말합니다. 표제어에는 요압이 만 이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이 와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대상 18장 12절에서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의 차이 정도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큰 관련은 없고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만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소금 골짜기는 사해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큰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에돔에게 당한 참담한 패배와 곤고함을 토로합니다. 주석가들은 본시를 전쟁 초기에 일시적으로 다윗 군대가 수세에 몰렸을 때를 기억하며 지은 시라고 해석합니다. 굳이 표제어에서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이유에서 패배를 떠올렸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다윗 왕과 요압과 아비새 등의 장군들이 힘을 합하여 요단 동편의 전투에서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서 왕이 거느리는 군대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보고가 들어오기를 다윗의 주력 부대가 요단 동편에서 싸우는 동안에 비교적 방비가 허술했던 사해의 남방이 에돔의 나머지 군대에 의해 침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군대를 돌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해 옆에 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투를 벌였는데 대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요압과 아비새의 후발대가 다윗 왕과 합세하고서야 에돔군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불리했던 전세를 뒤집어서 승리했다면 그 기쁨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3절까지 승리를 노래하지 않고 비참한 패배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전연승의 가도를 달려온 다윗의 군대가 참담하기 그지없는 패배를 경험한 것을 굳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후대를 위한 교훈 때문입니다. 다윗이 본시를 짓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패배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패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생패배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패배한 다윗의 군대는 주를 경외하는 선민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분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느 민족들 틈에 있더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깃발을 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진리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17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곧 구분되는 것이며 앞서 말한 깃발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깃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통과될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깃발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구분됨을 뜻합니다.
전쟁터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더라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이 대표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자기 방어와 생존을 위한 나라의 영역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유독 선민 이스라엘만큼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의 흐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회상합니다.
5~6절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 약속으로부터 지금의 전쟁의 의미를 가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출애굽 한 것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500년 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BC.2000년경이고 다윗이 시대가 BC.1003년경이기에 근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천 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천 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전쟁이 복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뜻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즉 6~9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의 행적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뿐만 아니라 주변의 블레셋 모압 아말렉 등의 다른 많은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모조리 이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조차 하지 않은 사해 골짜기에서의 일시적인 패배에 주목합니다. 자신이 천 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하나님 뜻의 흐름을 소금 골짜기에서 끊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패배를 통해 그 흐름이 잠깐이나마 끊겼었고, 그 흐름을 다시 잇기 위해 다윗은 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흐름이 끊겼을 때

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자 본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시겠다는 하나님 뜻의 흐름이 이 순간에 끊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앞선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도중 남쪽에서 일어난 침략의 보고를 듣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다른 전쟁과 달랐던 점은 미리 계획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의 준비가 없이 오직 에돔에 대한 앙갚음에 대한 다급한 마음으로 임했고 패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모든 전쟁에 임할 때에 오직 하나님 뜻의 흐름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5절을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킬 때에 전쟁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수행하심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그 흐름을 끊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거룩하심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살펴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과하여 흐르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 마음의 모습을 상징화한 곳입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비어있는 마음의 지성소에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 속에서만 당신의 뜻을 흘려보내십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전이나 성막의 지성소의 모습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통과하여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투에서 마음을 성막의 지성소의 모습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전쟁에서는 마음을 지성소의 모습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뜻들이 다 통과되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연전연승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급한 보고에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전투에 임하자 마음은 지성소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마음에는 에돔에 대한 앙갚음이 생겨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일지라도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하게 되자 마음은 거룩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간이라도 에돔에 앙갚음을 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믿게 되자,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이라면 에돔이 침략을 했어도 궁극적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피신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셔서 에돔을 무찌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에 에돔을 물리쳐야만 기쁘리라는 생각을 담자 그 결과는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후대가 교훈으로 삼기를 바라며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는 노래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오면 만사는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흐름을 끊고 있습니다. 끊겨진 이유는 마음이 거룩함의 상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 뜻의 흐름이 사업 현장에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건강을 최고로 여겨서 마음의 지성소에 건강이라는 이름을 붙잡는다면 마음은 지성소의 모습처럼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한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의 모습을 갖출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봄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을 관찰해보면 전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뜻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을 이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마음에 드는 대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있습니다. 나는 그 뜻의 내용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깨달아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최선으로 믿느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의 모습을 내 마음이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내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돈 문제가 급하고 건강 문제가 급하고 직장 문제 등의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아무리 급해도 해답은 하나님 뜻의 흐름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뿐입니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채우시고 나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는 이

유는 기뻐하기 위한 대상이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들어온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은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형통을 담은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승진과 건강을 담은 내가 죽었음을 끊임없이 인정해갈 때에 마음은 하나님을 붙잡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럴 때에 끊겼던 하나님 뜻의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백 투 더 퓨처의 마지막에서 브라운 박사가 목숨을 건 결단으로 전선을 이었을 때에 벼락은 드로리안의 동력이 되어서 마티를 다시 30년 후의 현재로 돌려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어진 하나님의 흐름을 잇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작업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은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끊는 우리의 체질은 활성화됩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십자가를 붙잡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나를 위한 최선이자 최고의 뜻인 하나님 뜻의 흐름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 생활화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